

장시(江西)성, 유동인구에 대한 관리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

작성자: 중국 권역별·성별 연구단 박진희 연구원

■ 장시성 정부는 9월 5일 장시성 유동인구¹⁾의 거주등록 방법 및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·서비스를 명시한 ‘장시성 유동인구 서비스 및 관리방법(江西省流動人口服務和管理辦法)’을 공표함.

- 이에 따라 △장시성 유동인구에게 임시거주증(暫住證) 대신 거주증(居住證)이 발급되고 △거주지 후커우(戶口·호적)를 가진 이들에게만 제공되던 취업교육, 사회보험, 아동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를 유동인구도 받을 수 있게 됨.

표1. 장시성 임시거주증과 거주증의 주요 차이점

	임시거주증	거주증
발급 대상	장시성내 해당지역에서 1개월 이상 머무를 예정인 16세 이상 유동인구	장시성내 해당지역에서 30일 이상 머무를 예정인 16세 이상 유동인구 중,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-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맺은 자;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; 주택을 구입한 자
소지인이 받는 혜택	무	유동인구가 거주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(취업교육, 사회보험 서비스 등) 외에, 직업 자격시험 응시 및 자녀의 의무교육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짐.
발급 비용	유	무
유효기간	1년 이내	6개월-3년

주: 「장시성 유동인구 서비스 및 관리방법(江西省流動人口服務和管理辦法)」, 「장시성 임시거주인구 관리방법(江西省暫住人口管理辦法)」을 참고해 정리함.

■ 이는 유동인구의 귀속감을 높이고, 도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·관리하기 위한 것임.

- 이러한 목적 하에 2008년부터 선전(深圳), 다롄(大連), 광저우(廣州) 등 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거주증을 거주증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.²⁾

1) 중국에서 ‘유동인구’란 보통 취업·취학 등의 이유로 호적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가리킴. 그러나 장시성의 본 문건에서 지칭하는 유동인구는 ‘장시성 후커우(戶口·호적)가 없지만 장시성에 거주하는 이들 및 장시성 후커우를 가진 이 중 성(城)내 거주 행정구역(시, 현)을 옮긴 이들임.

2) 그러나 각 지역의 인구 수 및 정부 재정 현황에 따라 거주증 발급 조건과 발급에 따른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음.

- 주변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이 더디고 잉여노동력이 많아 대표적 노동력 유출지였던 장시성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, 최근 지역의 발전 및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.

○ 인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장시성에서도 부분적으로 인력난이 발생하기 시작함. 장시성 통계국이 올 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난창(南昌)시 100개 중소기업 중 73.9%가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함.

■ 이번 조치로 장시성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유입이 확대되고 유동인구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나,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시성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(박진희 연구원)